

선교단체에서 본 의사와 사회와의 관계

류 기 선

수원의료원, 한국누가희 선교부 이사

그날 따라 서울은 온종일 함박눈이 내렸다. 그 덕분에 12시간을 기다린 후에나 겨우 인도행 비행기를 탔다. 그러나, 이것은 고생의 시작일 뿐이었다. 뉴델리에 도착해보니 진료에 필요한 짐은 모두 빠져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짐을 찾아 또다시 이들이 걸려 도착한 지진지역은 폐허가 된 건물더미들과 몇몇 사람들뿐이고 이미 수많은 전세계 구호단체들이 철수를 하는 중이었다.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넓은 땅에 소개시켜 놓아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 우린 이대로 사역을 포기할 처지여서 몇 시간을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현지인이 우릴 안내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밤새 이동하여 비로소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마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폐허된 건물 사이에 수없이 늘어난 환자를 보며, 1차와 2차 그리고 3차팀으로 2000여명의 지진난민을 진료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 동문선배의 올해 2월 인도지진난민 의료봉사의 짙막한 수기이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인이란 무엇일까. 본질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

님의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삶 가운데 실천해 보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사회의 약자와 고통받는 자를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은 특히 기독교 의료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의무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자(예수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기독교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여 살 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물리쳐 정의와 평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 단체는 교회를 도와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내외 선교단체들은 성경공부와 제자 양육,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활동뿐 만 아니라 사회윤리와 정의구현,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 통일운동에까지 그 내용과 사역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의료선교단체들도 캠퍼스와 의료사회 복음화, 의료봉사, 해외선교, 국내외 재

* 류기선 : 수원의료원 일반외과, 한국누가희 선교부 이사

난구호 활동 이외에 의료인 자정운동, 생명윤리 운동, 전인지유 활동, 호스피스 활동, 성경적 의학 연구모임, 동서의학 연구모임, 남북한 통일 연구모임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지상과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이 두가지 명령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땅 끝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한 공부가 있어야 한다. 사회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통찰력을 얻을 좋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은 학생시절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련의 시절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룹으로도 할 수 있고 학부 커리큘럼에서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과 사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봉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꾸준한 훈련과 연습은 적절한 지식과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대와 같이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호화찬란한 대형 병원이 많아도 여전히 병원 문턱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노숙자들이 그렇고, 무의탁 노인들이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다. 시골 구석에만 의료의 오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심 한 가운데도 있다.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 노인들, 미혼모 여성들, 매춘 여성들, 행려 부랑자들, 지진, 홍수, 난민들. 구조적인 악과 제도아래고 생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힘을 모아 봉사해야

할 대상이다. 평소에 잘 훈련된 군인만이 전쟁터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듯이, 의대생과 수련의 시절에 봉사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세상과 사회에서, 국내와 해외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선배 의사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연세의료선교센터, 기독교 사회, 의료선교협회, 전문인선교협회, 이웃사랑회, 글로벌케어, 한국누가회, 한민족복지재단, 남북나눔운동, 전인지유협회, 한국호스피스협회, 낙태반대운동,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동서의학연구회 등.

세 번째는, 올바른 리더십의 자질을 키우는 것이다. 세상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체적인 봉사의 훈련이외에 더욱 필요한 것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것이다. 의사로서 이 사회에서 겪게되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 들 앞에 사회는 우리에게 올바른 역할을 기대한다. 개인으로 그룹으로, 교회와 단체에서 적절한 리더십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맛을 내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추악하고 죄된 것을 몰아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도록 요청받는 것이다. 허위진료, 과잉진료, 부당청구, 리베이트, 낙태 등에 대하여 손해와 왕따를 감수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의사. 바쁘고 과중한 진료 가운데 친절하고 솔직하며 최선을 다하는 의사. 추악하고 더러운 사회부조리를 개선하고 잘못된 제도를 성실하게 개혁하려는 의사. 이런 의사를 이 사회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밝은 의료사회와 공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리더십이 요청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훈련과 자질은 학생때

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의과대학에 처음 입학하였을 때,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나중에 의사가 되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한다. 슈바이처와 같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런데, 의과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지내면서 냉엄한 사회현실을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변한다. 결국 처음의 결심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의사가 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그런가하면 진료

이외에 의료봉사를 하며 해외에서 의료선교를 감당하고 사회의 부정직에 싸우며 잘못된 생명윤리에 반대하고 성경적 의학연구에 몰두하고 통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훌륭한 선배 의사들도 많이 있다. 아무쪼록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며 세상과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